

국립중앙박물관서 4월 25일~10월 22일 전시되는 옥천사 괘불(경남유형문화재 제299호).

국립중앙박물관, 신년 주요 전시계획 발표

국중박, 석가탄신일 '옥천사 괘불展'

지역서도 불교 관련 전시 이어져

호남 불교 조명 '마음이 곧 부처' 등

2016년 韓日반가사유상 만남

일평균 관람객 2,229명 '3위'



국립부여박물관 특별전 '백제 왕실 사찰, 왕흥사'서 전시되는 '치미'

전국 국립박물관, 2017 불교 관련 전시 '풍성'

전국 곳곳서 더욱 다양해진 불교 관련 전시가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1월 23일 교육관 1층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립중앙박물관 및 13개 지역 소속박물관 2017 주요 전시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진행된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형 괘불전이 올해도 이어진다. 19세기 전반 경남지역 괘불의 신앙과 특성을 조명하며, 4월 25일~10월 22일 고성 옥천사 괘불 등 4점을 전시한다. 옥천사 괘불(경남유형문화재 제299호)은 1808년(순조 8년) 제작된 견본채색 대형불화로, 높이 9.99m 너비 3.36m에 달한다. (02)2077-9000

지역서도 불교 관련 전시가 이어진다.

국립경주박물관은 3월 7일~5월 7일 특별전 '세계유산 백제'를 마련한다. 웅진 · 사비기의 백제문화를 신라문화와 연관성을 토대로 조망하며, 미륵사지 석탑 출토 사리장엄 등 100여건이 소개된다. (054)740-7500

국립광주박물관은 호남 불교의 정신적 토대 '구산선문'의 역사와 선맥 계승을 조명하는 특별전 '마음이 곧 부처卽心是佛-호남 불교미술의 정수'를 진행한다. 8월 14~10월 22일 보림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및 탑지석 등 100여점을 선보인다. (062)570-7000

국립부여박물관은 왕흥사의 창건과 운영과정을 규명하고, 수준 높은 백제의 불교 공예와 건축 등 조명하는 특별전 '백제 왕실 사찰, 왕흥사'를 실시한다. 기간은 7월 25일~10월 9일로, 왕흥사 동승방터 출토 '치미' 등 300점 작품을 전시한다. (041)833-8562

국립대구박물관은 불교 관련 특별전 1건 및 테마전 2건을 마련한다. 먼저 '관음(觀音), 소리를 보다'는 불교의례의 소리들과 중생의 소리를 살피는 관음보살을 조명하는 특별전으로, 국보 제183호 금동보살입상 등 80여점을 선보인다. 기간은 5월 23일~7월 30일이다. 또한 테마전 '흙에서 찾은 불상'과 일연 스님이 저서한 〈삼국유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는 '민족의 역사책, 삼국유사'를 진행한다. 각각 2월 7일~9월 10일, 9월 22일~12월 10일 열린다. (053)768-6051

국립춘천박물관은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등 50여점을 선보이는 특별전 '학수고대-새로운 전시를 기다리며'를 3월 29일~10월 1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은 9월 5일~12월 31일 녹유연꽃무늬서까래기와 등 100점을 소개하는 테마전 '미륵사지의 백제 수막새'를 진행한다. (033)260-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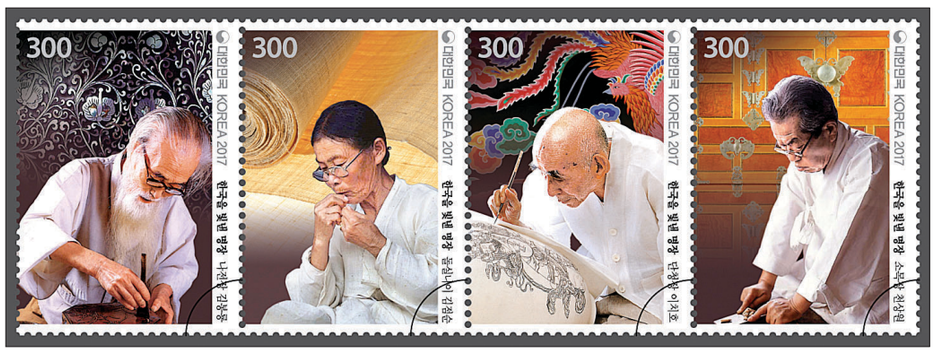
한편 이날 이영훈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발표한 2016년 관람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3일~6월 12일 진행된 '한일 국보 반가사유상의 만남'이 일평균 관람객 2,229명(총 관람객 4만6,801명)을 동원, '아프가니스탄의 황금문화', '보존과학, 우리 문화재를 지키다'에 이어 하루 관람객수 평균 3위를 차지했다. '한일 국보 반가사유상의 만남'展이 인기를 끈 이유에 대해 이영훈 관장은 "한일을 대표하는 명품반가사유상 단 2점만으로 전시가 이뤄졌단 점이 관람객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갔다고 생각한다. 일본 관람객이 많이 방문한 점도 1가지 요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장은 신년 계획에 대해 "2005년 10월 개관 후 12년차를 맞는다. 세계적 박물관으로 거듭날 앞으로 100년을 위해 내실을 다질 것"이라며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각 지역 소속 박물관 활성화 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단청장 만봉 스님, 우표로 기린다

우정사업본부, 25일 명장 기념 우표 발행



한국 문화유산 명맥 전승에 기여한 명장 우표 낱장 이미지.

시대를 대표한 단청장이자 불모(佛母)였던 故 만봉 스님(1910~2006)을 우표로 만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기덕)는 "전통공예 분야에 종사하며 한국 문화유산의 명맥을 잇는 데 크게 기여한 국가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4인을 선정해 기념우표 4종 총 56만장을 1월 25일부터 발행한다"고 1월 24일 밝혔다.

명장 기념우표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만봉 스님을 비롯해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김봉룡 나전장과 국가무형문화재 제32호 김점순 곡성 돌실나이 보유자,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천상원 소목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만봉 스님은 14세부터 예운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전통 불교 미술의 양식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스님은 교화용 불화, 건물의 단청까지 두루 제작했고, 전통적 소재 위에 화려한 색감과 상서로운 의미를 더하여 현대적으로 표현해 왔다.

이와 더불어 김봉룡 나전장은 검은 옻칠과 대비되는 화려한 빛깔을 가진 자개를 섬세하게 오려 작품을 만들었으며, 김점순 돌실나이 보유자는 대마[삼] 줄기를 쪼개어 실을 만들어 삼베를 직조하는 장인이었다. 통영 출신의 천상원 소목장은 장롱을 비롯한 가구를 만들 때 나뭇결의 자연스러운 미를 살려내는 기술이 뛰어났다. 특히 상감기법으로 硨磲 무늬를 장식하는 솜씨로 유명했다.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 "선정 장인들의 각기 기술은 다르지만 오랜 기간 뛰어난 솜씨로 전통공예 분야에 종사하며, 한국의 옛 멋을 발전시켜왔다"면서 "이번 우표발행으로 한국 전통공예의 아름다움과 기술의 우수성을 국내 · 외에 널리 알려 전통공예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첫 삽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등 체험 가능

범어사의 12년 숙원 사업 '선(禪)문화교육관'이 드디어 첫 삽을 뜬다.

선문화교육관은 2005년 10만평 규모로 추진됐던 '선문화타운'이 환경훼손 우려로 중단된 후 다시 재개된 불사다. 전통 기와 미를 조합한 한옥형 지붕 건물 2층으로 총 2동이다. 건축면적은 900여 평(2900㎡)이며 2018년 3월 완공 목표다. 범어사 측은 "선문화교육관을 통해 숙박형 템플스테이, 명상체험, 사찰음식 등 다양한 불교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공식은 2월 5일 오후 2시 범어사 상마을에 위치한 사자암서 개최된다. 하성미 기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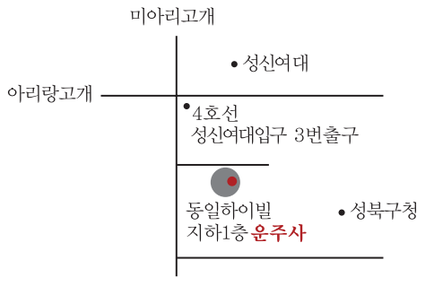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불교도서, 명상음반,
불교용품 전문
운주사





www.unjusa.com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Tel. 02-3672-7181